

광주 '그린마을' 주민과 함께 녹색생활 실천합니다

남구 노대동 휴먼시아7단지 등

12개 마을 상반기 평가 긍정적

전국 최대 규모인 광주시의 '그린(Green)마을'이 상반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체 12개 마을 가운데, 2개 마을은 전국 상위 10개 마을에 선정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 155개 그린마을에 대해 2012년도 중간평가를 실시(7월5일~8월29일)한 결과 광주는 우수등급에 3개 마을, 보통등급에 9개 마을이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39개 마을(25%)이 우수마을로 선정 됐으며, 보통 42개(27%), 미흡 74개(48%) 등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마을이 한곳도 없었다.

광주시 남구 노대동 송화마을 휴먼시아7단지는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아 전국에서 세 번째로 우수한 그린마을로 평가됐다. 휴먼시아7단지는 전체 530가구 가운데 91%가 넘는 481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다. 또 입주민 한마음축제를 그린마을사업과 병행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생태환경 보전 등의 운동을 꾸준히 추진했다. 주민 주도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고 농작물 직거래장터, 그린마을 쇼케이션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참여를



남구 노대동 휴먼시아 7단지 생태텃밭.

이끌어내기도 했다.

96점을 받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우수한 그린마을로 선정된 동구 계립동 금호아파트는 전체 958가구 가운데 891가구(93%)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했으며, 에너지 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모두 5억원을 들여 기존 중앙난방시설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고, 급수방식도 획기적으로 전환해 동절기 난방비를 51% 가량 줄였다. 또 생태습지, 야생화단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지팡이 사육장 운영 등으로 친환경 생태환경

■ 2012년도 광주시 Green마을 중간평가 결과

소재지	마을명	가구수 (주민수)	평가 결과
동구	계립동 금호아파트(전국 4위)	958(3832)	우수
	계립동 두산위브아파트	658(2133)	보통
	자신동 휴먼시아 아파트	375(200)	"
서구	금호5차 호반리센시빌	701(2100)	"
	화정동 증통파크(증통주택)	320(1040)	"
남구	송화마을 휴먼시아7단지 아파트 (전국 3위)	530(1720)	우수
	임동 아델리움 1단지	340(1045)	보통
북구	신안동 모아티문아파트	180(514)	우수
	임동 한국아델리움 2단지	574(1820)	보통
	신동아아파트	391(1100)	"
광산구	신창3차 호반베르디움	360(1240)	"
	신창5차 호반베르디움	972(3500)	"
	155개소	6359(2만1244)	



동구 계립동 금호아파트 금붕어 연못.

을 조성했다.

하지만에너지 절약 사업이 공용시설 LED등 교체, 고효율 시설(고효율 변압기 등)로 개선, 양변기용 절수기 배수, 절전형 전기기구 배수 등에 치우치고 각 마을별 특색 있는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광주지역 12개 마을 가운데 최하위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여와 작은 실천이 우수마을들을 만들어 간다"며 "올해 좋은 평가를 받아

내년에는 그린마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올 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2 그린마을 육성사업' 선정 결과 총 12개 마을에 6359가구 2만1244명이 참여해 전국 최대 그린마을이 조성됐었다. 서울은 2개 마을 5300가구, 부산은 12개 마을 4700가구가 선정됐었다. 그린마을로 선정되면 1000만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고 1년 동안 자원활용, 녹색교통, 녹색소비, 생태환경사업 등을 실시해 연말에 평가를 받게 된다. /김경기자 kki@kwangju.co.kr

9월 세계 평균기온 통계 이래 최고 평년보다 0.24도 높아

9월 세계 평균 기온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상청은 15일 세계 8천300곳의 측정지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9월 세계의 평균 기온이 평년 기온(1891~2010년의 평균치)보다 0.24도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1891년 이후 122년 사이의 최고 기온이다.

지금까지 9월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평년 기온을 0.22도 웃돈 2005년과 2009년이었다.

올해 9월 기온이 이처럼 올라간 것은 일본과 시베리아, 유럽 동부, 북미 서부, 남미 남부의 기온이 상승한

데다 올여름 폐류 앞바다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북부 카타마르카주에서는 9월15일 하루 평균 기온이 평년을 약 8도 웃도는 27도, 최고기온은 38도에 이르렀다. 캐나다 북부의 케임브리지 베이에서는 9월28일 하루 평균 기온이 평년을 9도 웃도는 5도를 기록했다.

일본 기상청은 장기적인 지구 온난화나 10~수십년 단위로 퍼풀이되는 자연변동도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9월 세계 평균 기온은 100년에 0.6도씩 상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적 의류명품업체 47곳

환경오염문제 업체서 납품

풀로, 아르마니, 칼빈 클라인 등 세계적인 명품 의류 업체들이 환경오염 문제 있는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다는 중국 환경보호단체들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 공중환경연구센터는 15일 보고서에서 49개 명품 의류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버버리와 에스컬엘은

제외한 47개 업체들이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는 하청업체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의 모임인 녹색선택연맹은 지난 4월 이후 49개 명품 의류업체들에 대해 납품업체들의 환경오염 관리 여부를 질문했으나 17개 업체만 응답했다.

이중 염색 납품업체들의 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버버리, 나이키, 아디다스, 리바이스, 에스컬엘, H&M 등 6개 업체뿐이었다.

특히 디즈니, 폴로, 361도, 카파, 메이시스, 아르마니, 칼빈 클라인, 카르푸루 등 19개 업체는 아예 응답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구미 불산사고 “부실대처가 피해 키웠다”

국감, 여야 의원들 강력 질타 대책마련 촉구

16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불산 가스 누출사고를 둘러싼 환경청의 안일한 대처에 여야 의원들이 집중砲火를 퍼부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사고발생 후 불과 12시간만에 환경부가 심각단계를 해제하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시간만에 상황을 종료하는 등 이번 사고는 부실한 초동대처와 풀사고 처리가 2차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관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흥영표 의원도 "구미시청은 사고 발생 8분만에 상황을 접수했지만 대구환경청은 1시간 15분을 넘어 상황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현장에 학교와 특수화학분석차량의 장비와 똑같은 것이 있었지만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며 관계 당국의 무능을 질타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사고발생 당시 초속 1.2m의 바람이 불면서 불산가스는 시간당 4km 이상 날아갔지만 2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해서는 주민 이격거리를 겨우 1.5km로 정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연합뉴스

그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쓰지 않아 피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미량의 불산가스도 흡기, 안구, 피부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환경부는 관리하기 좋게 기준을 정했다"면서 "사고 이후 소방관, 공무원 등이 방호복자와 입지 않고 현장에 투입됐다"며 부실한 대처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불산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은 것은 잘했지만 사고 초기 관계 기관이 우왕좌왕하면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도 "OECD 기업과 동시에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OECD지침서'에 따라 대비를 했다면 이번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무경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매뉴얼대로 모든 훈련을 했지만 사고 때 관계 기관끼리 현장에서 공조체계가 미흡했다"면서 초동대처 잘못을 시인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지만 사고 초기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